

---

# 2015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일 본(日本, JAPAN)】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I 연 수 개 요

## □ 연 수 목 적

- 행정계획 도시 및 친환경 도시재생과 관련한 우수정책 및 자료수집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종합사회복지시설 및 문화관광자원 운영관련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
-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행정·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향상

## □ 기 간 : 2015. 03. 23.(월) ~ 03. 30.(월) (7박8일)

## □ 연수단 구성 : 14명

- 단 장 : 부의장 경 기 문
- 단 원 : 신창욱(운영위원장), 이영철(행정재무위원장), 황동현(복지건설위원장), 박상구, 고재익, 공병선, 김용원, 김동협, 조기만
- 수행공무원 : 4명(송삼선 수석전문위원, 강명춘 공보팀장, 차상준, 안수영)

## □ 주요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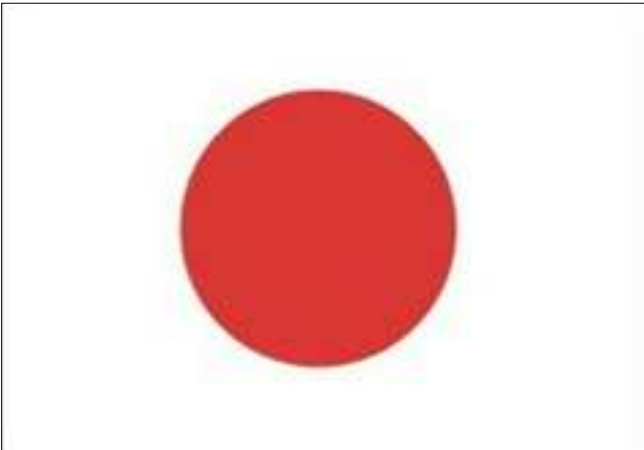
- 오키나와 문화진흥회
- 오키나와 평화기념 공원(한국인 위령탑)
- 무코시의회 및 매운맛(게키가라) 상점가
- 고베시 종합복지타운(시아와세노무라)

## 연수 일정

월/일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비고
제1일 03/23 (월)	인천공항 오키나와 나 하	<b>OZ172</b> 전용버스	09:40 11:55 12:30 14:00 18:00	인천 국제공항 출발(약 2시간 15분 소요) 나하 국제공항 도착 중식 ▶ <b>현장시찰</b> : 평화기념공원(한국인 위령탑) 석식 후 호텔 휴식	
제2일 03/24 (화)	나 하	전용버스	08:00 10:00 13:30 17:30	조식 ▶ <b>기관방문</b> : 오키나와 문화진흥회 ▶ <b>문화탐방</b> : 가쓰렌 성터, 슈리성(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식 후 호텔 휴식	
제3일 03/25 (수)	나 하 후쿠오카 유 후 인 오 이 타	전용버스 <b>NH482</b> 전용버스	08:00 10:30 12:10 13:30 15:00 17:00 18:30	조식 후 나하 공항으로 이동 국내선 항공기 탑승, 후쿠오카로 이동 중식 유후인으로 이동 ▶ <b>문화탐방</b> : 유후인 민예촌 오이타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휴식	
제4일 03/26 (목)	오 이 타 우 스 키 분고다카다 벳 부 페 리	전용버스	07:00 09:00 10:00 11:15 12:30 14:00 15:30 17:00 18:00	조식 후 우스키로 이동 ▶ <b>현장시찰</b> : 우스키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분고다카다로 이동 ▶ <b>현장시찰</b> : 분고다카다 재래시장(쇼와시대의 마을 재현) 중식 벳부로 이동 ▶ <b>문화탐방</b> : 유노하나 페리 터미널로 이동 페리 승선, 석식 후 휴식	

월 일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제5일 03/27 (금)	고 베  오 사 카  가시와라	전용버스  전용버스	07:00  10:00 12:00 14:00 16:00 17:30	하선 후 조식  ▶기관방문 : 시아와세노무라(종합복지타운) 시찰  중식 후 오사카로 이동  ▶현장시찰 : 오사카 후레아이 공생회(특별양호노인홈)  가시와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휴식	
제6일 03/28 (토)	가시와라  교 토  무 코 기후하마시 하마마쓰	전용버스   신간센	07:00  09:00 10:30 12:00 14:00 17:44 18:44	조식 후 교토로 이동  ▶문화탐방 : 청수사(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현장시찰 : 니시키재래시장(400년 전통)  중식  ▶기관방문 : 무코우 시의회  하마마쓰로 이동  열차 내 석식 후 호텔 이동 휴식	
제7일 03/29 (일)	하마마쓰  미 시 마 하 코 네  동 경	신간센 전용버스	07:00  08:49 10:00 12:00 13:30 15:30 18:00	조식 후 하마마쓰역으로 이동  미시마로 이동  하코네로 이동  중식  요코하마 경유 동경으로 이동  ▶현장시찰 : 신도청 전망대  석식 후 호텔 휴식	
제8일 03/30 (월)	동 경  나 리 타 인 천	전용버스  OZ105	07:00  09:30 12:00 13:00 18:50 21:30	조식  ▶현장시찰 : 도시 디자인 탐방  중식  나리타로 이동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 □ 일 본



< 국 기 >



< 전 도 >

○ 일본은 아시아의 동북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전체 면적은 남한 면적의 3.8배이고, 한반도 전체보다 1.7배 넓은 377,950km<sup>2</sup>이며, 세계에서 60번째로 넓은 국가이다.

행정구역은 1도[都: 도쿄도(東京都)], 1도[道: 홋카이도(北海道)], 2부[府: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43현[縣: 기후현(岐阜縣), 나가노현(長野縣) 등]의 총 47개로 나뉘어 있으며, 수도는 도쿄(東京)이다.

종교는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이고, 입헌군주제 국가로, 정부는 내각책임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이다. 화폐 단위는 엔(円)을 사용합니다.

## ○ 개 관

1. 국 명 : 일 본(日本, JAPAN)
2. 면 적 : 377.950km<sup>2</sup>(한반도 면적의 1.7배)
3. 구 성 : 4개의 주된 섬과 주위의 3,000 ~ 4,000여 개의 작은 섬  
- 4개의 섬 :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4. 민 족 : 일본족(日本族, Japanese)
5. 기 후 :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
6. 수 도 : 도쿄(東京, Tokyo)
7.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8.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9. 문 자 : 가나[假名; 히라가나(平假名), 가타가나(片假名)]
10. 종 교 : 신도 52.3%, 불교 42.2%, 기독교 1.1%, 기타 4.3%
11. 교 육 : 의무교육 9년(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 ○ 정 치

일본의 국가원수는 아키히토 천황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 정치를 지향해

오고 있다. 전후 일본의 정당 구조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55년 이후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집권은 1993년부터 2년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 경 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국방을 미국에 맡기고 경제발전에 전념한 일본은 1980년대에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Bubble economy)'가 붕괴한 이후 장기불황 속에 경제구조 개혁, 재정건전화 등으로 장기불황 탈출에 노력하였으나, 2007년 말 세계적으로 타격을 미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기 확대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세계 경제가 200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차츰 회복되고, 일본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경기둔화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2009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 경제는 2009년 2/4분기를 정점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에 따른 수출 증가폭 감소, 친환경차 보조금 부여 및 감세 등 주요 경기부양책 종료에 따른 소비 증가폭 감소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 ○ 교 육

일본의 현행 교육제도는 의무교육인 소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그 이후의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1868년의 메이지유신 및 연합군 점령 이후의 교육개혁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본에서는 3세~5세 어린이의 약 56%가 유치원에 통원하며, '일일 유아원'까지 포함하면 약 90%의 어린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는다. 소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국어, 수학 등 일반과목을 담당하고 음악, 미술 등은 전문 교사가 지도한다. 중학교에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대한 기초적 지식 습득 및 개성에 맞는 장래 진로 선택 능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98%인데, 고등학교는 국립도 있으나, 대부분은 공립과 사립이다. 2년제 단기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률은 약 57%이다.

## ○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고려 말부터 일본과 무역을 해왔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 통신사로 경제와 문화 교류를 하며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으나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식민 제국주의로 성격 변화, 우리나라에 1910년 일제 강제 합병 이후 식민 통치를 시작했고, 이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를 당하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독립했다.

이후 1965년 박정희 정권 이후로 꾸준히 수입 수출이 증가해서 지금에 이르러선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수출2위 대상국이고, 수입 측면을 보면 1위 대상국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에게도 우리나라는 수출입 2~3위 정도의 대상국이 되고 있다.

현재의 관계는 우리나라와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죄와 독도, 동해 영유권 주장으로 그리 사이가 좋진 못하지만 일본은 문화, 경제적으로는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이다.

## 1.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한국인 위령탑)

오키나와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현민을 총 동원한 유일한 지상전으로, 수십만 명이 희생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였다.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은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당시의 격전지였던 오키나와섬 남부 마부니[摩文仁] 언덕에 조성한 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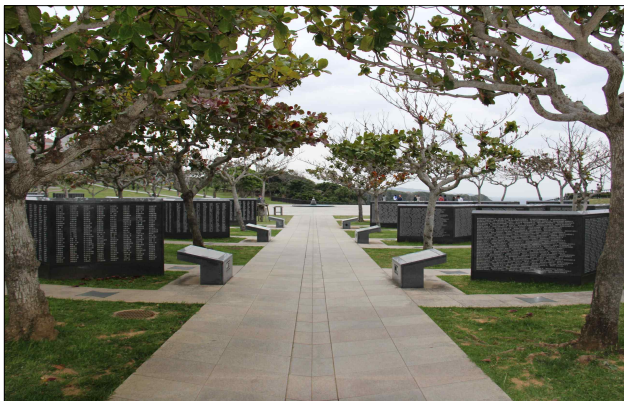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전경



오키나와 평화기원당

공원 외곽에는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2층에 마련된 사진 전시실에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영상 기록들이 남아 있다. 흰색의 탑이 우뚝 솟은 평화기원당은 평화 기념공원의 상징이며, 내부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상이 있다.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공원에는 20만 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검은색 위령비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이것을 '평화의 초석'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만주침략 때부터 오키나와전투 때까지 이곳에서 숨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곳으로 끌려와 사망한 한국 국적의 조선인 231명과 북한 국적의 조선인 82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공원의 한켠에는 이들을 기리는 둥근 돌무덤으로 된 위령비가 있다.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평화의 초석**



**한국인 위령비**

우리 연수단은 떠나면 타국까지 끌려와 돌아가신 한국인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인 위령비 앞에서 숙연히 묵념을 올렸다. 우리는 위령비 앞에 서서 타역 하늘 아래에서 누구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을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한국인 위령비 앞에서 묵념하는 연수단**



**한국인 위령탑을 느껴보는 연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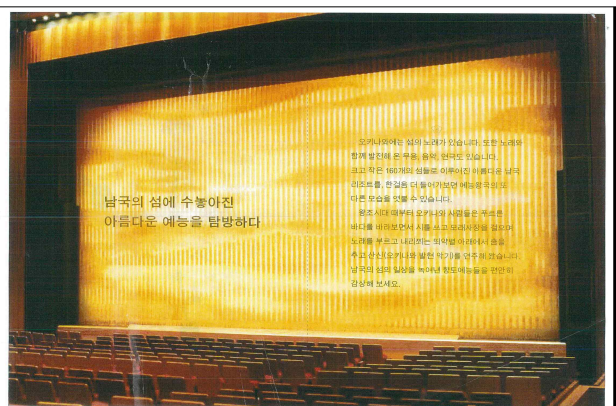
## 2. 오키나와 문화진흥회

일본의 오키나와는 일본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곳곳의 건물들을 보면 용의 그림과 선명한 붉은색의 조화 등 중국의 건축양식이 가미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는 17세기 초까지 류큐(琉球) 왕국이라는 독립된 국가였으며, 태평양 전쟁에서는 전 인구의 1/3가량이 희생되었고, 전후에는 미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이런 복잡한 역사 때문에 이 지역사람들은 지역의식이 강하고, 일본 본토와는 다른 많은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오키나와 문화진흥회는 이러한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문화, 예술, 학술의 보급, 정보 제공, 조사 연구, 교류 등을 도모해 주민의 주체적,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역사적 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오키나와 지역의 문화, 예술, 학술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키나와 문화진흥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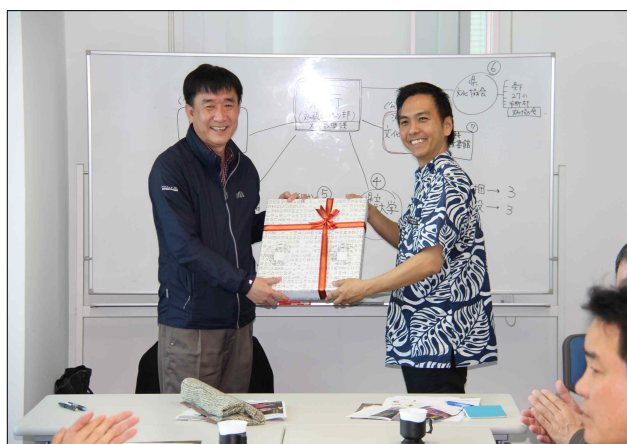
오키나와 문화 진흥원 홍보 브로셔  
- 오키나와 국립극장 -



우리 연수단을 위해서 오키나와 전통의상을 입고, 한 시간 이상 진행된 오키나와 문화진흥회 히라타 다이치 이사장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통악기 연주를 직접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자부심과 열정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이사장답게 우리나라의 전통 탈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마침 우리가 한국의 전통 탈을 기념 선물로 전달해 드렸더니 아주 반가워 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작게나마 일본 오키나와 땅에 전파하는데 일조한 것 같아 뿌듯하였다.

우리 연수단도 오키나와 문화진흥회의 문화·예술 보존 및 보급 등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구의 문화 예술 분야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상해 본다.



**기념 선물 증정식**



**연수단과 이사장의 기념 사진**

### 3. 분고다카다 재래시장

분고다카다 재래시장은 인구 1만 8천여명의 오이타현 쇼와마을에 위치한 시장으로 과거 쇼와시대에는 분고다카다 강가 주변으로 상점가가 생겨 생기가 넘쳤으며, 일본 각지의 배들은 이곳 상점가를 반드시 거쳐야 할 정도로 물자와 사람 교류가 활발하였다. 하지만 인근에 국도가 생기고, 산업 기반 시설도 들어오지 않아 마을은 점점 활력을 잃어 유명도시화 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점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거쳤으며, 건축재생, 역사재생, 상품재생, 상인재생의 콘셉트로 마을을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분고다카다 재래시장 전경



분고다카다 재래시장 시찰 중

이와 함께 분고다카다 시에서는 자본금을 출자해 “분고다카다 시 마을만들기”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코스 기획, 개발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분고다카다 재래시장 소품들**



**분고다카다 재래시장 안내도**

현재에는 지역 상점 주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행정의 후방지원으로 한 해 3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가 될 수 있었다.

우리 강서구에도 작고 큰 많은 재래시장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대형 마트와 견줄 수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전용주차장 및 고객만족센터 건립, 아케이드 지붕 설치, 대형마트 격주 휴무제 등 많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연수단은 분고다카다의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 우리구 재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 4. 시아와세노무라(노인종합복지타운)

일본 정부의 노령인구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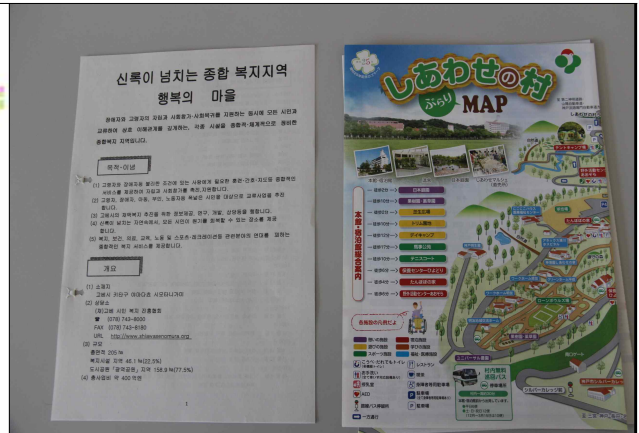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시아와세노무라는 고베시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우리말로 “행복촌”으로 번역된다. 미야자키 타츠오 전 고베 시장이 노르웨이의 복지센터를 모델삼아 205만㎡의 광활한 녹색 대지 위에 총 35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복지타운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운동공원, 레크레이션 및 야외 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온천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일본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다.



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전경



**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위치도**



**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안내 브로셔**

노인종합복지타운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설은 미야자키 타츠오 전 고베시장이 고베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고베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인 “자립과 연대”를 구체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1971년 기본 구상을 검토하여 부지를 결정하여 1981년 착공하게 되었고, 1987년 오픈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곳은 수십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보더라도 일본에서 손에 꼽힐 만한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실로 엄청나게 획기적인 구상이었다고 한다.



**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본관**



**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관계자 간담회**

단지 내에는 34개의 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의료·복지·장애인·고령자 등의 10개 시설은 민간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24개 시설은 고베시에서 복지진흥 재단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에는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불합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간호·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 참가를 촉진·지원하고 상호 연대의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 부인, 노동자 등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단지 내에는 연수와 레포츠, 휴식을 위한 시설이 결합되어 있어 대기업 연수 같은 것도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마을의 온천은 수질이 좋기로 유명해 온천욕만을 위해 찾는 사람도 많다. 해마다 200만명이 찾는 도시 공원형 시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이 곳 유지 비용의 절반을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시설 시찰 중**



**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관계자와 단체사진**

우리 연수단은 일본의 선진적인 종합복지타운의 규모와 운영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몸소 체험하고, 일본의 노인복지 제도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종합적인 복지타운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부러움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나아가야 할 복지 분야의 방향에 대해서 본보기가 될 만한 유익한 시찰이었다.

## 5. 무코시의회

무코시는 일본 교토부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67km<sup>2</sup>로 우리구의 1/6 규모이고, 인구는 약 5만 3천명 가량으로 우리구의 1/11 규모의 소도시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우리구와 같은 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와 3개의 상임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



무코시의회 본관 전경



무코시의회 관계자 간담회

각 나라의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국회를 하나의 합의회로 구성하는 단원제, 국회를 두 개의 합의회로 구성하는 양원제가 있다. 일본은 우리과 다르게 대표적으로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총 242석), 중의원(총 480석)으로 나뉘어 있는데, 미국의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중의원으로 빗대어 말할 수 있다.

일본 의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적인 예산안 심의, 신임 수상 지명, 조약 체결에 관한 우선권, 내각 불신임안 또는 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법안 통과에서 중의원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법안 심의는 일반적으로 참의원, 중의원에서 각각 이루어지며, 이후 양측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보일 경우에는 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조율한다. 하지만 지속해서 양원의 주장이 엇갈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를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참의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 통과를 시킬 수 있다.



무코시의회 관계자 질의응답 중



무코시의회 관계자와의 단체사진

짧은 시간 동안의 기관 방문으로 우리와는 다른 의회 제도로 각자 제도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제도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6. 이총(耳塚)... 비총(鼻塚)

일본 연수 중 근처에 이총이 있다는 가이드의 말에 당초 계획에 없던 이총을 잠시 들러 조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이총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전쟁의 공로를 증명하고, 그 공로를 과시하기 위하여 조선의 군인과 양민 그리고 명나라 군인의 코나 귀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일본으로 가져가 무덤 형태로 만들어 놓은 무덤이다.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전쟁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의심이 많은 장군으로 군졸들에게 학살의 증거로 귀나 코를 요구하였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당시 군졸들 사이에서는 서로 베어가려고 난투를 벌이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조선어물이라는 기록에 1598년 조선인의 코 18만 5,738개와 명나라 사람 코 2만 9,014개를 합하여 모두 21만 4,752개의 코를 이곳에 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은 이와 같이 참혹하고 처참한 것이며, 약소국은 이러한 서러움을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충은 처음에는 코 무덤이라고 불리는 비충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남들 보기에 야만적이라고 하여 은근슬쩍 이름을 귀 무덤이라고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겁주려고 할 때나 어떤 물건을 못 만지게 할 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에비~”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귀와 코를 동시에 나타내는 이비(耳鼻)를 말하는 것으로 임진왜란 때 왜놈들이 코나 귀를 베어 간데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한다.

본 연수 초기에 제2차 세계대전의 오키나와 전투처럼 전쟁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남기고,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군인과 주민들의 살을 찢는 고통과 노력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또 한번 그 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이충(耳塚) 전경**



**이충(耳塚)에 조문하는 연수단**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해외연수단은, 금번 해외연수가 58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공복으로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심의로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수 목적을 백프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비록 짧은 연수 기간 중에도 해외 문화와 제도를 직·간접 체험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견문을 넓히는 또 한번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금번 일본 해외 연수를 마치며, 우리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 먼저, 일본의 앞서가는 복지정책이다.

일본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경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많으며, 이러한 점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리 연수단은 고베시의 종합복지타운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연계한 종합복지타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베시의 종합복지타운처럼 일반 주민들이 찾아와 승마, 골프, 온천 등을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휴양소와 같은 시설이 겸비된 진정한 종합복지타운의 개념은 부족한 듯 하다.

아직까지 노인, 장애인 분야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베시의 종합복지타운과 같은 환경과 시스템을 통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수단은 시설 견학을 통해 일본 특유의 섬세한 배려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복지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곧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일본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제일주의이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진과 화산, 태풍 등 천재지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생활에 의해 자연스럽게 몸에 베인 일본 사람들의 안전의식은 본받아 마땅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응 매뉴얼과 체제 정비 등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으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미비한 실정인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본 연수에서 일본의 안전 분야는 주된 연구 분야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안전제일주의는 일부러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연수 중간 중간에 본 연수단 눈에 떨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인의 삶 깊숙이 젖어들어 있었다.

연수 중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선생님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유치원 아동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모습이나 아동과 교사를 1:1로 매칭하여 야외 활동을 나가는 모습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본 연수 직전에 지하철 환풍구 붕괴사고가 있어서 였는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풍구에 안전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린이집 아동들 이동 모습**



**지하철 환풍구 안전 장치**

일본의 안전의식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연수를 한 것이 아니어서 일본의 안전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소소한 것만으로도 일본의 안전의식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 다음으로 일본의 관광산업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키나와, 나라, 도쿄 등 몇몇 도시들을 방문하여 일본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일본은 관광 대국으로서 체계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호무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수사, 동대사 등 오래된 사찰과 나라현의 전통가옥, 하코네의 온천 등 천연 자원을 살려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점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관광을 통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아베노믹스이 성장 전략의 하나로 관광 분야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우리구도 중국·일본 등 동북아의 관문인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허준 선생과 겸재 정선 등의 기존 자원 및 강서생태 습지 및 마곡지구 개발 등 숨어 있는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 분야의 성장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광이라고 꼭 놀고 먹는 것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클러스터처럼 의료 관광 등과 함께 롯데몰 등을 활용한 쇼핑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혀 중국, 일본 등 국외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서울의 경제 중심지이자 생활 중심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연수가 계획되고 진행된 만큼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이 보고서에서 그치지 않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연수를 통해 제도적으로 우수한 부분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로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 참고자료 : 구글, 네이버, 위키백과, 각 기관 홈페이지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